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UG 24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08 1982년 8월 23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August 23, 1982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영×불루어 고층아파트 불

◆18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불길이 19층의 한 주민이 안타까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관계 기사 2면에)

한국열풍 9월초까지

토론토 IMF총회 40명 파견

한국기관들 "쉴 새 없다" 비명?

전두환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몰고 오는 한국열풍이 9월 초순까지 이어진다.

약40명의 경제관계 공무원, 금융계, 산업계 인사들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토론토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개발은행(IBRD) 연례회의에 참석차 대거 몰려와 북적댄다.

이에 따라 전두환대통령 방문 사전준비및 방문기간중 제반업무에 시달린 오타와 한국대사관, 토론토 총영사관등 정부기관은 물론 캐나다외환은행, 무역진흥공사(KOTRA)등 관계기관 직원들은 뒷치닥거리에 계속 분주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 총영사관의 한 직원은 "7월하순부터 시작된 격무가 여름내내 계속된다. IMF총회가 끝나면 가을바람과 함께 정신 좀 차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IMF 한국대표단은 강경식 재무장관을 수석대표, 하영기 한국은행총재를 교체수석, 최창낙 산업은행총재를 부수석대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재무부 강성구 사무관등 6명의 선발대가 18일 토론토에 도착, 정지작업중이다.

한국이 이같이 대규모 대표단을 보낸 것은 84년 서울서 IMF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준비상황을 세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46개 IMF 회원국에서 공식·비공식대표 약 7천명이 참가한다.

IMF총회는 매년 회원국과 본부가 있는 워싱톤에서 번갈아 열린다.

IMF는 주로 서방국의 회원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련과 노선을 달리하는 중공, 유고, 루마니아등 공산국가들도 가입됐다.

금년 토론토총회의 캐나다측 대표로는 앨런·맥케큰 연방재무상과 제랄드·부이 중앙은행총재가 참석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 발표된 연례보고서에서 세계의 경제불황이 심각하다고 지적, 모든 회원국들은 악성 인플레와 고도의 실업률을 해결하는데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선진공업국들의 경기불황과 고실업률은 보호무역정책을 유도, 원만한 국제무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국제무역의 경직성은 의류·식료품등 생활필수품에 영향을 미쳐 후진국들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세계경제불황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보고서는 143개 회원국들을 선진국, 석유수출국, 비산유개발도상국의 3개군으로 나누어 각군의 재정·금융정책을 분석했다. 캐나다는 선진국군, 한국은 비산유개발도상국군에 포함됐다.

IMF는 45년 발족된 국제경제기구로 목적은 (1)국제통화의 협력, 무역확대, (2)환율의 안정, (3)가맹국간의 결재제도 확립, (4)국제수지 개선등이다.

익사체 1구

북한에 인도

(서울20일=연합)20일 판문점서 열린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에서 연합군측은 북한주민 1명의 시체를 북한당국에 인도했다.

이날 유엔군사령부는 이 시체가 지난 15일 북한강 북쪽 상류에서 익사체로 떠돌아 다니는 것을 남한 어부가 발견했다고 통고했다.

20대 남자로 보이는 이 시체는 속옷차림으로 전신에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문신을 갖고 있었다.

은행금리 16%

80년12월이후 최저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가 19일 15.25%에서 14.26%로 1주만에 거의 1%나 떨어졌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가장 신용이 좋은 고객에 주는 우대금리(Prime Rate)도 8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16%로 떨어졌다.

시중 모기지이자율, 예금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1년형 모기지 이자율은 로열·트러스트가 18%로 몬트리얼 은행이 17.75로 각각 내렸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전대통령 환영준비

한인회, 뱃지·플라카드 작성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는 지난 19일밤 블루어·웨스트의 오리엔탈·팔레스에서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 환영준비 모임을 가졌다.

토론토의 한인 각단체장들이 모인 이날 준비회에서는 1)전대통령 방문기념 뱃지 1천개 작성, 2)환영광고 합동게재 3)환영 플라카드 작성등을 실시키로 합의를 보고, 소요비용은 각 단체가 약 $250씩 갹출키로 했다.

◁금주의 행사▷

(8월23일-29일)

◆8월23일(월)~27일 장로교 중·고교생 수양회
곳: Pine Orchard Camp
강사: 남정숙(LA 김혜성목사 부인)
연락처: 423-5847, 252-1741

◆24일(화) 하오2시-7시 전국체전 복권상품 수여
곳: 체육회 사무실(미도파 3층)
주최: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25일(수) 상오9시 교회초청 배구대회
곳: Burnhamthrope Collegiate
(76 Keane Ave.)
연락처: 626-5382

◆27일(금)-29일(일) 한인가톨릭학생회 캠핑
곳: Earl Rowe(배리지역)
※50명 정원
지도: 민병선
연락처: 863-0415

◆27일(금)-29일(일) 하오7시30분 여성신앙수련회
곳: 토론토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Tor.)
강사: 남정숙 박사
연락처: 961-8361, 745-5327

북한시민 또 귀순

금년에 2번째, 예성강 넘어

(서울19일=연합)북한 주민 한명이 18일 새벽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귀순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박청식 국방부대변인은 황해도 백천지방에 사는 농부 이훈주(20)씨가 19일 새벽 1시경 강화도 부근 한국군초소에 귀순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통을 잡고 예성강을 넘어온 이씨는 귀순 이유로 남한의 자유를 그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비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오다 평남의 한 광산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백천의 농장으로 쫓겨난 후 귀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금년들어 두번째 귀순북한인으로 지난 1월에는 김용준(31)씨가 귀순했다.

◀ 사 고 ▶

◆윤방현 자문위원.

80년도부터 본 토론토 한국일보사 자문위원으로 수고하시던 윤방현 선생께서 개인사정으로 본사를 떠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무보수로 일해주신 윤자문위원께 본란을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ROM박물관 재개장

9월24일, 새단장끝내

왕립온타리오박물관(ROM: Royal Ontario Museum)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9월 24일 아침 10시 다시 문을 연다.

애초에 지난 7월1일 문을 열 계획이었던 이 박물관은 공사에 참가한 연관공(Plumber)들의 파업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으나 24일 개장을 밀고 나가기로 18일 이사회가 결정했다.

81년 1월이후 폐쇄, 대규모 수리에 들어간 ROM은 토론토의 명물로서 새로 무척추동물원, 진화, 식물학전시관과 파충류및 절족동물관을 보강했다.

박물관의 위치는 100 Queen's Pk.(Avenue Rd×Bloor)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97-3692이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23일부터)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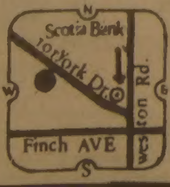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Scotia Bank
Toryork Dr.
Finch AVE
Weston Rd.

IATA
—추석맞이—
럭키국립공원 단체관광 (2차 모집)
■일 시 : 1982년 9월14일~9월21일(7박8일)
■방문일정 : 제스파 공원 2박 • 벤프공원 2박
캠룹스 1박 • 벤쿠버/빅토리아시 2박
■요 금 : $650
■포함된사항 : ● 왕복항공료 ● 숙박비(4인1조) ● 관광버스 ● 안내자
■신청마감 : 1982년 8월25일까지 ● 예약금 $100첨부
■기 타 :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한국인 안내자가 출발서부터 귀환까지 책임안내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대낮 필사의 화재대피소동

200여소방구조대원, 헬기까지 동원

1명사망 24명 부상

19일 상오 10시48분경 영·스트릿과 블루어 북서쪽 코너에 있는 헛슨 베이센터 18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60대 남자 1명이 심장마비로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화재의 원인은 조사중이며 부상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소방대원들도 포함돼 있으나 중상자는 없다.

18층9호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불은 대피하던 아파트주인이 문을 열어놓은채 피신하는 바람에 불길은 복도를 통해 전체 건물로 번졌다.

화재신고를 받은 토론토 소방국의 재빠른 출동에도 불구 빌딩전체의 전력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손길을 뻗을 수가 없었고, 연기로 찬 실내에서 고가사다리를 이용, 구조작업을 하느라 소방대원들이 애를 먹었다. 334동의 아파트가 있는 이 건물에는 스프링쿨러 장치가 없었고 화재 당시 400여 주민이 건물내부에 있었다.

화재원인을 조사중인 소방관들은 불이 1809호 침실 1개짜리 아파트·체스터필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내부는 냉장고만 남겨두고 깡그리 타버려 화인을 알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숨진 66살 바실·캠벨씨는 3002호 아파트 거주자로 불이 나자 피신하다 방향을 잘못 잡고 오히려 불길에 접근, 당황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들은 발코니와 창분에 나와 수건을 흔들며 구원을 요청했고, 지나던 행인들은 이 광경을 안타까이 지켜보았다.

토론토에서 가장 붐비는 코너중의 하나인 영 & 블루어지역은 12개 소방서에서 출동한 백여 소방관과 백여명의 앰블런스대원 경찰관이 진화및 구조작업을 펼치는 동안 완전히 폐쇄됐었다.

화재건물은 대 백화점회사 헛슨·베이(Hudson's Bay) 소유로 8천만달러를 들여 만든 빌딩이다.

지상에서 35층까지 메릴린치 증권회사를 비롯한 사무실과 260개의 방을 가진 플라자·II·호텔이 있고 그위로 28층이 아파트였다.

5대의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으나 실제구조에는 별 도움이 안됐었다.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하늘에의 길손인 듯 록키산의 명물 순록 사진 : 이기성

꿈과 낭만의 호수「레이크·루이스」를 굽어보는 산위에서 하늘에의 향수를 달래듯 하늘 그 피안으로 시선을 던지는 순록(ELK)

어린이축구 개막

소년부등 22개팀 참가

민중신문사 주최 제3회 어린이축구대회및 제1회 소년축구대회가 지난 14일 이토비콕 센테니얼·팍에서 열렸다.

어린이부 14개팀, 소년부 8팀등 총 22개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서는 예선전 18게임과 패자 준준결승전 1게임을 마쳤으며 21일 같은 장소에서 예선전 5게임등 나머지 경기가 벌어진다.

민중신문사 이전

13일 자축리셉션

토론토 민중신문사는 지난 13일 사옥이전 자축리셉션을 가졌다.

브로드뷰·애비뉴에 있던 주간 민중신문사는 블루어 한인상가가 가까운 802 블루어·스트릿·웨스트로 옮겼다.

새 전화번호는 (416) 537—3473

외대동창회 회장

김영배씨 선출

외대동창회는 8일(일) 있은 제9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영어과 5회 동문 김영배씨를 선출했다.

부회장으로 영어과의 변희룡씨, 총무는 일어과의 박희영씨, 지난 1년간 회장은 장해웅씨였다.

변호사남편 피소

불치아내 살해기도

〈휴스턴 〉 휴스턴의 저명한 변호사 윌리엄·챈슬러가 불치병의 부인을 흔적이 남지않는 독약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챈슬러는 법정심리에서 부인 수가 3년전 뇌일혈을 일으켜 신체가 부분적으로 마비된이후 그에게 자살을 도와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했다.

교민동정

◆민병선(한맘학생부장)=오는 27일부터 3일간 학생회 캠핑준비에 바쁘다.

유쾌하고 뜻있는 야영이 되기 위해 만반태세를 갖추는 한편, 교우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원겸(위니펙한글학교장)=제2회 한인민족상(봉사상) 수상에 이어 제2회 전국한글교사대회를 주관하느라고 긴장의 연속….

신경과 머리는 많이 썼지만 무사히 대사를 마치고 나니 입맛도 나고, 큰 짐 내려놓은 기분이라고….

◆전경수(한인사진협회장)=사진협회 임원들과 세계의 지붕 록키산맥을 누비고 돌아온 기행문에 이어 명승사진들을 삼우스튜디오(소장 장연탁)에서 전시회를 열어, 캐나다 서부 미경험자들에게 록키의 향취를 듬뿍 안겨주었다.

연방·주정부 주택보조금

경제생활과 우리 ⑤ VI 부동산상식=황용헌부동산 제공

○황용헌 씨

◉연방정부 보조금 $3,000

연방정부는 1982년 6월28일 예산안 발표시 주택경기부양의 방안으로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3,000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보조금을 위한 조건과 자격을 살펴보자.

▲새집을 사는 경우

1)과거의 주택소유 유무와는 상관없고,

2)년간 수입도 제한없으나,

3)구입하는 주택은 필히 본인의 기본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자주 점검할 수도 있다.

4)보조금 지불은 한사람에게만 한하며,

5)해당주택이란 반드시 이미 건축되었거나(과거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야 한다.), 현재 건축중이거나, 또는 1983년 1월1일 이전에 건축이 시작될 주택이어야 한다.

6)소유권 등기일자는(Closing Date) 1982년6월28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주택구입시 구매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짜는 1983년 12월31일이 넘어서는 안된다.

가구당 1동·8천달러

금년말까지 계약해야

7)다운페이먼트는 최소 10퍼센트가 되어야 하며,

8)지급되는 보조금은 본인의 다운페이먼트와 더불어 주택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9)주택구입자의 모기지는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0)주택가격은 $100,000을 넘어서는 안되나, 메트로 토론토지역, 메트로 뱅쿠버지역, 칼가리, 에드먼턴지역을 $150,000까지 증액시켜 주고 있다.

11)콘도미니움도 포함되며,

12)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자도 연방정부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1)과거 주택소유한자는 해당안되며,

2)구입한 주택에 즉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정부에서 재검할 수 있다.

3)콘도미니움도 가능하나, 단 1982년6월29일이후 전세를 주기위해 주택을 개조하였으면 해당안된다. 나머지 조건과 자격은 새집 구입시와 동일하다.

◉온타리오 주정부 보조금 $5,000

연방정부와는 달리 온타리오정부 보조금은 무상(Grant)가 아니고 무이자대부(Interest Free Loan)이다. 이의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자에게만 해당된다.

2)년간 수입의 제한은 없으며,

3)구입하는 주택은 필히 본인의 기본주택(Principal Residence)이 되어 살고 있어야 하며—정부에서 자주 점검할 수 있다.

4)보조금 액수는 최소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이며, 상한액수는 $5,000이다.

5)지급되는 보조금은 본인의 다운페이먼트와 더불어 주택구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6)주택가격은 메트로 토론토지역은 $115,000까지이며, 이외의 지역은 $90,000까지 제한된다.

7)거치기간은 15년간이며, 상환시작은 11년째부터 시작, 5년간 이자없이 60번 같은 액수로 지불한다.

8)만약 지불완료되기전 주택을 팔 경우 나머지 액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시말해 양도(Transter)가 허용안된다.

9)유효일자는 1982년 5월14일부터 1982년 12월31일까지 이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⑶

진정한 의미의 "신신학"은?

끊임없는 비판으로 자유케하는것

김낙중 (해밀턴한인연합교회 담임)

흔히 한국 교회에 신학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장로교회 첫 분열을 신학의 대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보수 신학과 신신학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가리기도 한다. 어느 쪽이전 간에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과연 신신학이 존재하는가?

〈보수주의〉는 가장 새롭다고 인정되나 사실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에 매달리는 의식 구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한 보수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신신학〉이란 가장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주장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신학〉은 〈수정주의〉를 가리킨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하여 자유케하는 진리의 길에 선 의식의 흐름만이 신신학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공산주의가 진정한 혁명적인 사상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스스로 〈반동〉이 되어버려 수정주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르시쵸프나 모택동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사관의 변증법적 발전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종결지은 마르크스의 원죄로부터 유래한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죽은 증거〉를 진리의 척도로 채택한 의식 구조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신신학〉으로 불리워질 수 없다. 증거의 홍수 속에서 가장 새로운 증거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한 〈보수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럴 바에야 〈위대한 시대착오가〉들이 저지른 〈아름다운 지조〉가 더 돋보이지 않는가?

자연과학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 장점은 〈자연의 정합성(uniformity)〉이라는 전제를 위협하지 않는 사례의 표본 채출로 귀납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점이다. 과학자의 인생관은 〈증거가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증거"와 함께 가려네〉이다. 그러한 증거들은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택된다. 그러나 신학자는 〈계시의 일회성(once—for—allness)〉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다면 신학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가 그것이다. 이것이 신신학의 정신이다. 그것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보수 신학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른바 보수 신학의 용서할 수 없는 대죄는 무엇인가? 자신의 권위를 절대자가 보장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인 과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못된 버릇이다. 〈하나님의 무오하심〉을 빙자하여 늘 자신을 정당화하는 파렴치가 〈성령거역죄〉에 해당한다.

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는 당대의 소견없는 지도층이 채택한 실수와 오류가 섞여 있다. 그러한 유산은 판례일 수는 있지만 불변하는 진리와 절대적인 당위가 아니다. 또한 당대의 말씀과 사회와의 함수관계에서 상수(constant)를 발견하지 못하고 변수(variables)를 끄집어 내어 주워 모으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한다. 재적용이 불가능한 〈죽은 증거〉의 시체 더미 가운데 앉아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고 중얼거리는 삶이 율법의 종살이이다.

신학의 대립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긴장으로 파악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한 이분법(bifurcation)이 가능한가 신학자에게 물어보라. 그러한 구원관의 차이가 사실은 거점 확보에 치중하는 정착민과 치고 뛰는(hit and run) 유랑인의 철학의 차이일 뿐이다. 혹은 마음이 여린(soft—minded) 사람과 드센(tough—minded) 사람의 기질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기질의 철학자가 관념론을 옹호하고 강인한 성격의 철학자가 실재론과 경험주의를 채택하게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의 복음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중 어느 한 편의 메쎄지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교역자가 자신의 목회 철학이나 처세술과 인생관을 정당화하려는 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계 속〉

Royal Conservatory of Music

●이주연 교수●
과 목 : 성악
등 록 9월1일부터
문의처 : 275—1029

●유회자 교수●
과 목 : 파이프올간
피아노
이론교실
Rudiment 1
Rudiment 2
등 록 : 9월1일부터
문의처 : 960—0074

ANNIE'S 미용실

확장이전개업스페샬

과거 Willowdale 지역에서 Downtown 쪽으로 업소를 확장이전해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봉사기간〉 9월10일까지
◎ 40% OFF

—남·녀 커트
—머리 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남·녀 파마
—매니큐 전문
—얼굴맛사지, 노화방지
—신부화장
—잔주름제거, 여드름 치료

※차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해 차편 제공 가능.

※불란서 고급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 : 463—9071 (퀸 × 브로드뷰)

환

영

Congratulations

— 전두환대통령 캐나다 방문 —

각하의 방문이 한국·캐나다간의 우호 재확인과 함께
양국 교역량의 증대를 초래해서 두나라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실 것을 빕니다.

D.Y.Import of Canada Ltd.

(D.Y.식품 카나다총판) 대표 오 기 환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단 편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 ⑥

이 태 준(문협회원)

"가정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딸애가 여기 온지는 한달도 못되었읍니다. 나이 때문에 두고 온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방문으로 와서 혼처를 찾고 있던 중이었읍니다. 그런데 저자가 어떻게 알고는…"

"잘 알겠읍니다. 어쨌든 저의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자는 제가 책임지겠으니 가보시도록 하십시오. 저자뿐 아니라, 선생님과 같은 처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처녀의 아버지를 돌려보낸 엄동선은 (구청수, 저놈을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구청수에게 다가갔다.

"너 우리집에는 다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어?"

"엄형, 우리 이러지 맙시다. 제가 언제 엄형 술값을 떼먹었읍니까? 저더러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양놈들한테 당하는 차별도 서러운데, 우리 동포끼리 그러지 맙시다."

엄동선은 그의 유들거리는 말투에 역겨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순간적으로 엄동선의 주먹이 포물선을 그으며 구청수의 턱을 강타했다.

"엄형이 나를 쳤지요? 캐나다는 인권의 나라입니다."

엄동선의 단 일격에 쓰러져 비실거리면서도 빈정거리는 것은 아직도 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엄동선의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맞다. 캐나다는 인권의 나라다. 너같이 여자들의 피나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을 위한 인권의 나라다."

엄동선은 술집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이놈을 밟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멀리서 앰불랜스가 윙윙거리며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동선은 혹시 경찰이 출동하는 소리가 아닌가 해서 마음이 불안스러웠으나 윙윙거리는 앰불랜스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안심을 한 엄동선은 입고 있던 티셔쓰를 벗어 던져 버리고, 구청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무예로 단련된 엄동선의 팔근육이 뱀처럼 꿈틀거렸다.

"너는 오늘 끝장을 내줄거다. 인권타령은 편안한 관속에서나 읊어라."

손동으로 구청수의 왼쪽 뺨을 후려치고 손이 돌아오면서 다시 오른쪽 뺨을 갈겼다. 새파랗게 질린 구청수의 입술 위로 코피가 주르르 흘렀다. 재빠르게 구청수가 주저앉으며 엄동선의 오른발을 붙들고 빌기 시작했다.

"형님, 제가 잘못했읍니다. 한번만 봐주슈."

비열한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면 불쌍할 정도로 애원을 한다. 구청수의 애원은 처량하고 가련했다.

엄동선은 그의 다리를 붙들고 애걸하는 구청수를 차마 내려다볼 수가 없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슬픈 생각까지 들었다.

◆

낡고 오래된 건물이 어둠에 싸여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노인아파트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가 「쿵쿵!」 밤의 정적을 깼다.

그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있다 급보를 받은 한양식당 권결식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뛰어오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였다.

동남아한약방 주인 한국재에 이어 침술사 송씨가 도착한 것은 김노인의 사위가 되는 전씨와 거의 같은 시각이었다.

자는듯이 거실의 마루바닥에 누워있는 김노인의 옆에는 김노인의 딸이 멀멀 떨며 울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한국재가 신발를 신흔 그대로 뛰어들어와 김노인의 맥을 짚으며 물었다.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가며 맥을 짚고 김노인의 눈을 까집어 본 한국재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뇌출혈인 것같애. 왼쪽 반신이 마비구먼."

"의식은 있는 것같애요?"

침술사 송씨의 물음이었다.

"의식도 없어."

"제가 들어왔을 때는 희미하게 있었던 것같아요."

김노인의 딸이 울먹거리며 덧붙였다.

(계 속)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배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53>

殺意의 斷層 ⑳

"내가 죽느니 차라리 그놈을 죽여야…"

문자는 그대로 자리에 멀거니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흘러들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러는 것일까. 왜 그이를 괴롭히는 것일까. 달빛이 눈에 어른거리더니 밑으로 굴러떨어진다. 그녀는 일어서서 계단쪽으로 걸어갔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있다가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여덟살짜리 어린아들은 침대위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라 그들 부부는 끔찍히도 아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과욕으로 흐르고 있어서 탈이었다. 아들 철민은 이제 국민학교 1학년생이었다. 그 나이라면 공부 따위야 젖혀두고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주면 되는것이다.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 그렇지가 않았다. 아이는 하루 스케줄이 꽉 짜여져있었다. 학교에 다녀오면 피아노 개인교습을 받기위해 다시 집을 나간다. 그 다음에는 심신을 단련시킨답시고 아직 뼈도 여물지 않은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낸다. 그것이 끝나면 아이를 책상 앞에 붙어 앉힌다. 아이는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곧장 잠에 떨어진다. 그러니 제 또래의 아이들과 명랑하게 뛰어놀며 지혜를 배울 틈이 없다. 수재의 아들답게 아이는 1학년 전체에서 석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는 1위란는 사실에 취해있었다. 아이가 속으로 곪아가는 것도 모르고. 부모의 과욕이 자식을 천재로 만들려다가 오히려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들지 않고있었다.

문자는 침대옆에 꿇어앉았다. 자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얼굴을 마주 비비면서 흐느껴 울었다.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팔다리를 휘저었다. 아이를 잘 덮어주고 손을 꼭 잡았다.

기도하는 자세로 침대위에 얼굴을 과묻었다.

『이 아이를 봐서라도 나는 죽어서는 안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 곤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朴 男 그림

내가 죽느니 차라리 그놈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녀는 소리판 죽이며 흐느끼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에 모세가 나타났다. 가슴에 칼이 박힌채 피를 흘리며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더 도망치지 못하고 모세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벽에 밀어붙여졌다. 모세는 두손으로 그녀의 가냘픈 목을 죄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 살리라고 외쳐댔지만 소리가 되어나오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우하니 몰려와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누구하나 모세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경군들 사이에서 문득 남편을 발견하고는 두손을 허우적 거렸다. 그러나 남편은 호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싸늘하게 서있기만 했다.

그녀는 번쩍 눈을 떴다. 얼굴이 온통 식은땀에 젖어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얼른 돌렸다.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거기에 우뚝 서있었다. 그녀는 무릎 걸음으로 걸어가 남편의 다리를 감싸안았다. 허벅지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못박힌듯 꼼짝하지 않고 서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수없이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가서 자지.』

한참만에 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미한국언론인 심포지엄

본국의식 버리고 이민사회에 애써야

(LA지사)제1회 재미한국언론인 심포지엄이 "언론과 책임"을 주제로 지난 31일 오후 4시부터 마이아미 비이치 이든 락 호텔 대연회실에서 열렸다.

플로리다 한국 언론인협회(대표 김현철)주최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등 대도시의 교포신문, 방송 편집, 제작 책임자들과 주최측등 15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미 교포언론이 안고 있는 문젯점과 시정 방향, 기자들의 자질향상 방안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이자리에서 "한국 언론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신태민(전 경향신문 부사장, 전 자유신문사장)씨는 "일찌기 율곡 선생도 공론은 나라 사람에게서 나오니 막을길이 없다 고 했으며 세론을 통해 국시가 정해진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세론을 활발히 하면 혼란이 생기고, 안보와 경제에 해롭다는 생각을 앞세우는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신문이 비판적인 논조를 택할때 언론에 그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책임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원초적인 원인에 있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철수씨(동아일보 뉴욕지사 주필겸 편집인, 전 동아일보 본사 편집부국장)는 "제작 실무면에서 본 교포신문"이라는 주제로 "기사의 양 문제에 앞서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명예훼손 고발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책임있는 보도에 치중해야함은 물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포언론은 자체 기강을 확립할 싯점에 서있다"고 역설했다. 진씨는 이어 "신문은 제작 실무면에 대한 광고주의 횡포를 방지하며, 신문이 상업성 편중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한국신보 발행겸 편집인 홍성원씨(전 대한일보 편집부국장, 주미특파원 역임)는 "교포신문의 자세와 위치"를 논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포 언론이 지나치게 서울을 의식하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지양, 앞으로는 보다더 교포사회에 구심점을 둔 제작태도를 지녀야 할것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본국관계 기사를 전혀 외면할 수는 없으나 현 싯점에서 교포 언론 기관은 한인사회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나를 가늠해야할 중요한 위치에 서있음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시카고 지사 이윤모 주필은 "교포신문에 대한 사회적 고찰"을 통해 "교포신문의 사회 지도상의 위치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 "과거 본국에서 볼수 있었던 권위주의적 태도를 버려야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일보 미주본사(로스엔젤레스) 편집2국장 유현수씨는 "교포신문 제작의 실제"에 언급, "미국의 생활 정보, 경제 정보, 한국계 시민 유권자들의 등록 캠페인등 기사 내용의 다양성을 기해야 하며 한국일보 미주 본사의 경우 신문 제1면은 교포들을 위한 로칼 뉴스가 차지하도록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포언론의 자세와 위치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전 북미 교포언론의 품위와 권위향상을 위해 기자들의 자질향상, 기사의 자율규제, 언론인들의 유대강화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가칭 언론연구원을 형성하기로 의결, 이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문위원에 진철수, 이정우(자유신문 논설위원), 이범진, 김현철등 제씨를 위촉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UNPAINTED FURNITURE

FOR SALE
CONTENTS OF FACTORY

DRESSER $88.00
NIGHT TABLE $29.95
36" x 72" $98.00
BOOKCASE 36" x 36" $29.95
DESK $69.95

MANY OTHER ITEMS AT SIMILAR SAVINGS
BUNK BEDS $99.95
MATTRESSES TWIN DOUBLE $49.95

★ 믿을수 없는 가격

★페인트 칠없는 나무그대로의 원제품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레스토랑·사무실등에 각종비품 대량공급.

한번들려주세요.

NORTH PARK DISTRIBUTORS
3368 YONGE ST. 488—7911
(7 Blocks North of Law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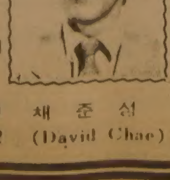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식
〈R〉 (416)633 7892 (David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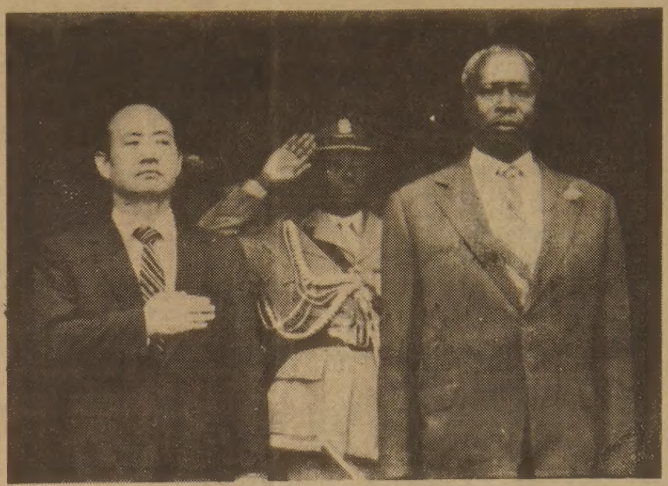
技術협력·合作투자 합의

韓·케냐 頂上회담、오늘 共同성명 발표

開途國「개발前線」형성 "한국의 統一정책 支持"

【나이로비=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은 17일하오 모이 대통령과 韓·케냐 頂上회담을 가진데 이어 방문이틀째인 18일상오 (현지시간)에는 조모·케냐타 前대통령의 墓所에 獻花하고 나이로비市廳을 방문한후 마사이라마 국립공원을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엔 사파리 파크호텔에서 姜錫在대사가 주최한 現地僑民을 위한 리셉션에 참석, 교민들을 격려했으며 저녁에는 迎賓館에서 모이대통령이 주최한 공식晩餐에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19일상오 모이대통령과 한차례 작별회담을 갖고 케냐방문을 決算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뒤 두번째 방문국인 나이지리아로 떠난다.

全대통령、하오 두번째 나이지리아로



◇조모·케냐타공항의 환영식장에 나란히선 全대통령과 다니엘·모이 대통령。애국가가연주되자 全대통령은 가슴에 손을얹고 경의를 표하고 있다。【나이로비(케냐)=聯合】

한편 全斗煥대통령은 17일 저녁 (한국시간) 아프리카의 첫방문국인 케냐에 安着, 이날밤 숙소인 영빈관에서 다니엘·모이 케냐대통령과 頂上會談을갖고 韓半島를 중심으로한 東北亞와 아프리카정세등 국제정세와 개발도상국간의 협력및 경제협력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공동관심사에관해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특히과거 다함께 반식민투쟁의 경험을 가진 한국과 케냐가 앞으로 反植民主義이념에 더욱 투철할것을 강조했고 모이대통령도 이에대해 공감을표시했으며 한·케냐간의 협력의 새시대 개막을위해 다함께 노력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全대통령은 또 개발도상국간의 상호의존과 보완관계를 활용, 발전시키기 위한 開發전선 (디벨로프먼트프런트)의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북한이 무력통일정책을 포기하지않고 대폭적인 군비증강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같은 긴장해소와 남북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실현을 통한 양측의 신뢰회복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가장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모이대통령은 이같은 우리의 대화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 당국자가 설명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회담에서 양국원수는 개발도상국들의 힘을 조직화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원수는 이날 회담에서 두나라사이의 기술협력확대, 경제·통상관계의 강화및 문화교류의 증진에 합의했으며 특히 민간기업간의 합작투자문제에 있어서 양국이 정기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올림픽정신에 입각한 국가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고 모이대통령도 이에대해 찬의를 표하면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개최를위해 전폭적인협력을다할것을 약속했다고 한관계당국자가 설명했다.

이자리에서 全대통령은 모이대통령이 적절한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것을 제의했고 모이대통령은 이를 수락한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과 모이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을 마친뒤 金埈成부총리와 케냐측의 키바키부통령의 주재로 李範錫외무, 金東輝 상공등 15명의 한국측 공식수행원과 케냐측관계각료들간에 열린 양국확대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모이 케냐대통령은 인사말을통해『한국은 우리가 독립했을때 다른나라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승인하고 대사를파견해준 고마운나라』라고 말하고 케냐 젊은이들의 기술훈련문제에 언급『한국에서 교관이 오든가 우리쪽에서 한국에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國父 케냐타 墓所도 참배

【나이로비=尹國炳특파원】케냐방문 이틀째를맞은 全斗煥대통령은 18일상오 (한국시간) 케냐의國父인 조모·케냐타 초대대통령묘소를 참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나이로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조모·케냐타 묘소에 도착, 케냐육군군악대가 애국가와 케냐국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마티 케냐국회의장의 안내로 묘소에 獻花 묵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나이로비 시청을 방문, 시장실에서 카하라시장과 오동고부시장등 나이로비시 간부들과 잠시 환담했다.

"歪曲부분 再修正해야"

自民黨 외교부會 文部省에 건의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해 자민당의 黨論을 조정한뒤 대륙침략에 관한 부분과 한국통치등 근대사의 왜곡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수정하는 방향으로 수습할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18일「문교부會」와「문교제도 조사회」가 합동회의를 연데 이어 외교부회를 연달아열고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받고 외교문제화된 검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어떤형태로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교부회는 한국과 중공등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재수정한다는 것은 검정제도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으나 사실상 외교문제화되고있는 교과서문제를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검정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최소한도의 수정에 응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외교부회는 아시아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 교과서문제는 신속히 해결하는것이 좋으며 그 방법으로는 ①왜곡대목의 시정 ②내년4월에 사용될 교과서부터 재수정해야 된다는데 합의, 문부성에 이를 건의했다.

韓日議員연맹 총회延期고려

韓·日의원연맹의 한국측議員團은 日本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9월초까지 시정조치돼야한다는 전제아래 이번주와 내주에 걸쳐 일련의 對應策을 강구하는 한편, 오는 9월7일 日本東京에서 열리는 연맹총회때까지 타결이 되지않을경우 총회의 연기를 고려하고있는것으로 18일 알려졌다.

李載瀅 韓日의원연맹 한국측회장은 16일에 이어 17일하오에도 李相翊간사장, 朴敬錫부간사장등과함께「교과서 왜곡시정문제를 집중논의했는데 來週가 이문제타결의 결정적 고비가될것으로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했다.

外務委 24일

日의 歷史歪曲 문제다뤄

民正、民韓、국민당은 日本의 역사교과서 歪曲문제를 다루기위해 국회外務委를 24일상오10시에 소집키로 결정했다.

3黨총무들은 18일상오에가진 회담에서 이같이합의했는데 林鍾基 民韓총무는 외무위를 23、24일 2일간열것을, 李東鎭 국민당 총무는 22、23、24일 3일간 열것을 각각 주장했으나 李鍾贊民正총무가 정부측의 외교적노력등 일련의 사정을 들어 하루만 열것을 제의、1일개최에 합의했다.

3黨총무는 또한 일본측이 역사歪曲문제 시정에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않는한 정부측의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러한뜻을 外務委를 통해 정부측에 전달키로했다.

中高生처벌 善導위주로

서울市教委 停學기간에도 특별교육

서울시교위는 18일 교복과 머리모양의 자율화이후의중·고생선도 규정을 새로 마련, 각학교에 시달하고 2학기부터 학생징계에 적용토록 했다. 본문 21조와 부칙으로된 이 선도규정은 학생의 징계를 지금까지의 처벌이나 응징위주에서 선도위주로 하며 각학교의 자율성을 살리되같은 징계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교간의 징계형평을 유지하도록했으며 지금까지는 정학을 받으면 학교에 못나오게하던것을 등교하여 특별지도를받도록했다.

서울시교위가 이 규정을새로 마련한것은 각학교마다 징계기준이 큰 차이를 보여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교내생활성적 산정이 공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점과 청소년의 의식과 사회환경의 변천에따라 징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것이다.

이 규정은 징계의 종류는 ①근신②유기정학③무기정학④퇴학의 4종류로하고 근신은 7일,유기정학은 10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규정은 근신을 받은 학생은 등교하여 수업을받되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나 교도부의 특별지도를받도록 했으며 유기및 무기정학생은 징계기간중사고결석으로처리하되등교하여반성문과특별과제물등 학생부·교도부에서실시하는별도지도를받도록했다.

또 정학처분학생도 고사(시험) 기간중에는 시험을 치르도록했다.

"假名예금 保護말라"

民韓黨성명 與野토론회 거듭제의

民韓黨은 18일 정부와 民正黨의 7·3조치 補完策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再考를 촉구했다.

金鉉圭 정책심의회의장은 『이번 補完策이 불합리한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83년7월1일이전 實名化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거액假名예금이나 증권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된다고 주장, 3억이상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경우 70%의 세금을 내게되어 있는 현행 稅法으로 볼때한 例로 10억원의 假名예금이나 증권을 가진 사람이 83년7월1일 이전에 아들 이름으로 實名化하면 합법적으로7억원의 세금을 물지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83년7월1일이후 無記名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重課조치에 대해『이자소득세율이 20%포인트 높다는이유로 거액假名예금자가 實名예금으로 바꾸리라는것은 假名예금의 목적조차도 이해하지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金의장은 또『거액가명예금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세 내지 증여세의 포탈』이라고 지적、『1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案대로라면 현재의거액가명예금이나 증권에는 두배의 프리미엄이 붙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金彩增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우리는 7·3조치가 어떤 경로로 換骨奪胎되었는지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으며 국민경제에준 엄청난 충격에 대해 걱정해마지않는다』고 지적、『우리黨은 實名예금제에대한 與野토론회를 갖기를 다시한번與黨측에 제의한다』고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北傀장교 2명被殺

우간다 訓鍊團요원、反政게릴라에

【캄팔라17日UPI=聯合】北傀육군대령 1명과 대위1명등2명이 지난15일 우간다수도캄팔라 외곽에서 매복중이던 反政府게릴라들에 의해 피살됐다고 우간다日刊신문 데일리·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들 北傀軍장교가 캄팔라北쪽 35㎞지점 봄보軍막사 부근에서 피살됐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또 피살된 北傀軍장교들이 우간다육군에 배속된 약20명의 훈련단요원중 일부라고 말했다.

문노紙는 피살된 北傀軍장교가 대령1명과 대위1명등이라고만 말하고 그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全대통령登程 비방

北傀、분열행각云云

【서울=聯合】韓·阿의 새로운 協力關係시대를 열게될 全斗煥대통령의 역사적인 阿洲4개국및 캐나다巡訪登程에 대해 北傀는 16일 이를「분열행각」운운으로 모략·비방하고 나섰다.

北傀는 이날 선전기관을통해 全대통령의 5개국巡訪사실에 언급、『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기위한 분열행각』이니『제3세계나라들을 분열와해시키려는 목적』운운으로 터무니없이 헐뜯는 모략중상선전을 늘어놓았다.

PLO도 撤收시작

重武器 레바논移讓

【텔아비브17日NASA=聯合】팔레스타인게릴라들은 비밀문서를 파기하고있으며 重武器類를 레바논정규군에 넘겨줄 태세를 갖춤으로써 西베이루트철수를위한작업을이미시작한것으로16일전해졌다.

텔아비브의 하레츠紙는 이날 아리엘·샤론 이스라엘國防相이 현재 진행중인 평화협상을 방해하기위해 앞으로 며칠동안 군사행동을 취하지않는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게릴라들이 금주안에 베이루트를 철수할것이확실하다고 보도했다.

美·佛軍등3천5백 베이루트進駐 준비

【로마17日UPI=聯合】약3천5백명의 미국·프랑스·이탈리아軍은 17일 금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 게릴라 (7천~9천명)들의 西베이루트철수에대비、베이루트에 進駐하기위한 출동태세에 돌입했다.

이들 평화유지다국적군은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간의 철수협정에 관한 최종합의를 마무리짓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이것도 敎科書냐?!…"

民正재산등록 우선不動産만

民正黨은 9월1일부터 소속의원및 중앙당局長級이상의 당직자와 市·道지부사무국장들을 상대로 실시키로한 재산등록은 우선 不動産에한하고 動産은 후에 실시키로했다.

이같은 방침은 17일열린중앙집행위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88올림픽 特需붐을 내다보며 인삼재배가 한창인 龍仁지방에 전해오는 山蔘전설이 있다. 가난한 농부가 어느날 산에 나무하러갔다가 빨갛게 익은 열매가 달린 풀을 보고 그 열매는 물론, 그 뿌리까지 먹고 그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한참 자고 깨어보니 사흘이 지났더란 것이다. 산삼을 먹은 그 농부는 그후 추위를 아예 모르게 됐고 병에도 안걸렸는데 그때 먹은 빨간 열매가 다시 싹튼것이 오늘의 재배인삼의 기원이라고한다. ▼인삼재배의 기원에 관해서는 그밖에도 여러 전설이 있다. 고려시대 同福縣(지금의 全南和順郡同福面) 母後山에서 캐낸 蕃草 리를 얻어 병을 고친 崔某가 그 열매를 씨앗으로 뿌린것이 시작이라는 말도 전해온다. 한데 엊그제 全北 鎭安郡 朱川面 大佛里 雲長山밑 中里마을에서는 한달사이에 한마을 12가구가 잇달아 40뿌리의 산삼을 캐 온 마을이 경사로 뒤덮였다. 그것도 처음에 발견한 李德炳씨는 16뿌리나 캐서 6백만원을 벌었고 다른 한사람은 한뿌리에 2백만원짜리나 되는것을 캤다고하니 심마니(採蔘者)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궁금하다. ▼山蔘에는 千年根、5百年根도 있다지만 百年이상 묵은것은 사실상 판별이 어려운 모양이다. 두더지가 산삼의 싹을 잘라먹는수가 흔히 있어 蘆頭(뿌리의 대가리부분)만 가지고 감별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眠蔘이라하여 2·3년 休眠하는 삼이있는가하면 蘆頭에 妬根이 달린수도 있다. 골동품을 감별하는것 만큼이나 山蔘감별은 까다로운 것이다. ▼蘆頭、色澤、形狀으로 年數를 따지지만 얼마만큼 人形에가까운가에 그값이 달려있기도 하다. 가슴이 크고 목이길고 胴體가 굵고 긴것을 最上品으로 치며 이러한 逸品은 수만금을 주고도 못산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론 毛根이 많고 길어야 하며 蘆頭 가까운 곳에 가로로 주름이 많아야 알아주는 것이다. 色相은 약간 붉은 빛을 띤것을 佳品으로 손꼽는다. 중국사람들은 뿌리가크고 尾部가 짧은것을 좋아하나 서울에서는 그형태가 細長하고 尾部와 수염이 긴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옛적엔 山蔘하면 江界나 三水甲山등지가 유명했는데 全南 雲長山에서 山蔘이 잇달아 나온것을보면 우리 三千里江山엔 어느 深山幽谷에도 山蔘이 자랄수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人蔘의 학명 Panax는 라틴어로 萬能藥을 뜻한다. 이 萬能藥을 캐낸 雲長山의 심마니들에게 멀리서 축하를 보낸다.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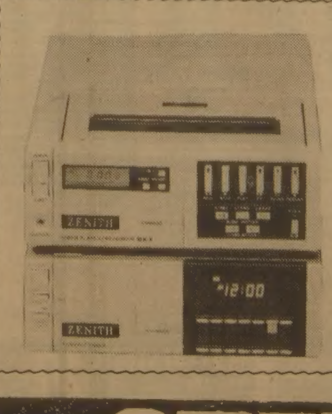
Super 여름철 비데오 특별대매출

교민여러분!
금번 신형 제니스 비데오 SET를 구비해서 아직 비데오를 구입치 못하신 분을 위해 여름철 마지막 세일을 시도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표 전 광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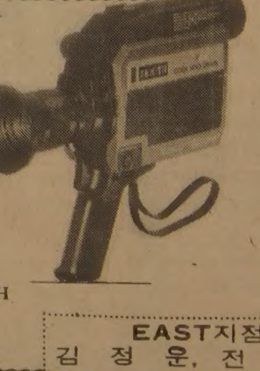
HOME UNIT : 특별세일 $899.00
Model No. VR 8900

ZENITH

·24 HOUR AUTO RECORDER
·PICTURE SPEED SEARCH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REG. ~~$3,179.75~~
NOW. $2495.00



❖ PORTABLE VIDEO
❖ RECORD & PLAYER WITH CAMERA(WIRELESS 무선)
❖ REMOTE CONTROL포함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不便한 관계」의 解消

——美·中共 공동성명의 意味와 背景

오늘의 焦点

美선 對蘇견제 속셈

【워싱턴18日=李文熙특파원】臺灣에대한 사실상의 무기판매 제한을 의미하는 美·中共 공동 코뮈니케는 외교에서 실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또하나의 예가 될것이다.

코뮈니케 발표에서 바로 이런연상이 가능한것은 불과 보름여전에 레이건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우리는 오랜친구인 臺灣을 버리지 않을것이며 臺灣관계법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우리는 臺灣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비밀협정같은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도덕적 의무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의 코뮈니케가 臺灣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거나 臺灣과의 기존관계를 단숨에 저버린것이라고는 할수없다.

하지만「北京의 승리」로 기록되고 臺灣에게는 미국의 중요한 과오라고 비난의소리가높은것만봐도이코뮈니케의 의미는알수있다.

엄격히 미국측으로 봐서도 1979년1월 美·中共 관계정상화에의한 미국과의 臺灣관계법을 1백%성실히 수행할것이라 보기어렵다.

이관계법은 미국은 중공과 국교를 정상화함과 아울러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게될 臺灣에 대해서는 방위용무기를 공급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어느 수준이라든가 점차축소해 나간다는등의 언질은 없기 때문이다.

레이건대통령이 臺灣에 오랜 우방임을 강조하는상황에서 이런성명이 나오게된 배경에 대해 미국내의 관계자들이나 신문들은 대개 몇가지로 나눠 분석하고있다.

첫째로 중공과의 불편한 상황의제거, 즉 외교적마찰의 해소가 미국으로서는 對蘇견제등 여러면에서 비교할수없는 최우선적인 당면과제 였을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적 정치성향을 견지해온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선거유세에서 臺灣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겠다고 한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이러한 그의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對臺灣정책에 마디마다 그런뜻이 숨어있다.

그의 최근의 회견은 고사하고 지난달 13일 신임 [illegible]국무장관이 상원청문회에서 臺灣에 필요한 방어용무기공급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한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됐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臺灣에 대한 자세는 중공으로부터 비난의대상이 되어왔고 실제 관계저상을 야기시켰다.

1971년 上海성명에서 비롯된「하나의 중국」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창한 반론에서부터 미국내에서도 카터는 물론 닉슨시대에 비해서도 美·中共관계는 후퇴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또한 美·中共간의 불편함에서 야기될 여러가지상황을 두려워하는 주변국가들의 은근한 압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런 상황아래서 레이건대통령은 지난1월 臺灣에 대한 FX전투기판매를 중단했다.

물론 대신에 F5E機의 합작생산을 승인했지만 이시기는 이미 아더·힐北京주재 미국대사를통해 새로운 성명의 협의가 중공당국자들과 비밀리에 진행중일때였다.

당시 헤이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된 성명보다 훨씬 강력하게 臺灣에 대한 무기공급 중단시일을 명시할것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이것은 헤이그장관이 사임하게된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였다고 한 신문칼럼니스트가 밝히고있다.

어쨌든 이런 시일명시안은 레이건대통령에의해 수정되어 北京에 보내졌고 鄧小平이 이를 거부하리라는 臺灣의 기대와는 달리 중공이 이를 수락, ①미국은 臺灣에대해 무기판매를 무한히 계속하지않고 ②질과 양 양면에서 현수준을 넘지않고 ③무기판매를 점차 줄여나가며 일정기간을 지나 최종단계에 이른다는 등 9개항의 성명을 낳게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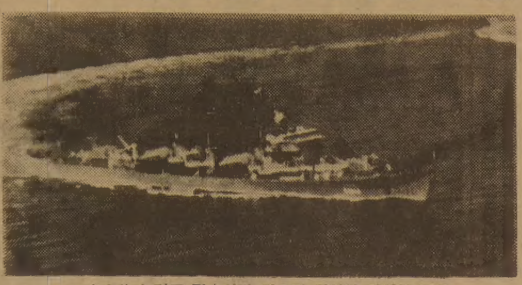
두번째로 이번성명의 배경으로 생각할수 있는것은 이러한 합의가 오히려 臺灣해협의 긴장완화에 기여할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성명발표후 臺灣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중공과의 합의가 臺灣침공의길을 만들어준 중대한 과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성명발표 전날 의회지도자들에게 그내용을 사전 브리핑한 미국무성 고위당국자는「평화적방법에 의한 중국통일」의 명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최근 중공과 臺灣간의 긴장은 어느때보다 완화되었으며 이러한것이 이번 성명을 가능하게 한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명직후 臺灣해협의 긴장이다시 고조된다면 이는 미국이 이번성명에서 밝힌 입장의 재고를 의미할것이라는 행정부 관리의 말로도 뒷받침되고있다.

이런 두가지 내용과는 다른 것이지만 과연 이성명이「중공의 외교적승리」「臺灣의 패배」로 간주될만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미국이 이 성명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中共이 건조,진수시킨 최초의 최신식 미사일 구축함으로서 中共해군의 北海함대에 배치된 CX105號의 모습。【北京17日AP電送=聯合】

모호한 文案… 해석도 自己式

臺灣해협 긴장高潮땐 美 再考예상

즉 이들에의하면 미국이 이성명에 불구하고 臺灣관계법에서 명시한 한계에서 크게 일탈하지 않았다는것이다.

이점에관해 워싱턴 포스트紙는『워싱턴과 北京은 모두 후퇴했던 양국간의 관계를 되돌리는데 합의한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합의에대한 해석은 각기자국의 이익과 국내정치문제에 관련시켜 자기식으로하고있는것같다』고 지적했고 한때語數學교수였던 하야까와 상원의원은(캘리포니아·共)『비록 문안이 분명치않지만 다행스런것은 그문안들이 우리가표현하려했던것을 모두 나타냈다는점이다.

이경우 문안의 모호함이란 상황의 모호함을 말한다. 우리는 臺灣문제에 관한한 당분간 이런 모호함을 견지해야 될것같다』고함축있는 논평을 했다.

美국무성의 한 아시아전문가는 이성명에서 보여준 미국의 서약이란 무기판매 감축의 시간표도 명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언제끝난다는것도 명시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해석에 명실일것은 아니지만 홀드리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현상황에서 미국은 臺灣에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무기판매는 계속하겠다』고 못박고 있는것도 이런 모호함과 함께 주목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같이 성명자체에 대한 해석이 구구할수도 있는상황이지만 미국내의 반응은「유쾌한 일은 못되지만결국은 옳은 판단」이라는쪽이 강하다.

물론 일부의원들은 대통령의 가장 臺灣를 두둔해던 레이건대통령이 이제臺灣의 이익을 이중으로 팔아먹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의원들은 北京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를 지지하고있다.

메아리

數才

數痴—수학 白痴—라는 말을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불러야할 사람은 꽤나 많다. 그들은 곧잘「나는 수학이 서툴러서…」라 말한다. 학교 선생님을 찾아 뵙는 많은 학부형들의 적잖지 않도 자녀의 수학 점수인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흔히들「수학이 서툴다」는 말을 하게 되는 까닭은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그하나는 수학이 워낙에 系列性이 있는 학문이라서, 조그마한「학습의공백」도 용납치를 않는것이다. 한 단원의 학습을 빼 먹으면, 그다음 단원을 따라갈 수없는것이 수학이다. 그래서 수학은 어릴적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한다는 충고가 타당하다.

「수학이 서툴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학실력은 매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있다. 주관적인데가 많은 국어과목과는 달리, 수학은 만점을 맞기도, 영점을 맞기도 쉬운 과목이라, 실력의 우열이 돋보인다. 그런데다가 모래알 씹듯하는 수학교육이니, 나도 모르게「수학엔 소질이 없다」는 數痴의식이 싹트게 마련이다.

이렇게해서 태어난 數痴는 J·B·멘켄의 警句에서 위로를 찾을 도리밖에없다. 그의 말을 빌면,『수학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으며,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는다』

그의 말대로, 우리 일상생활에는「루트」도「시그마」도 없다. 국무학자를 지망하는 학생이 앞으로 春香傳을 연필방식으로 풀것이 아닌바에야, 그가 數痴의식으로 괴로움을 당할까닭은 없어보인다.

그러나, 이런것은 나를 포함한 凡人들의 푸념일뿐이다.

세상에는 확실히 남다른 재질을 가진 數才—수학의 英才—들이 있다. 그들의 재간은 상당히 일찍부터 나타난다.

그한가지 예를 독일의 수학자 칼·가우스(1777～1855)의 일화에서 본다.

그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수학교사가 1에서 1백까지의 모든 숫자를 합치면 몇이 되느냐는 문제를 낸적이 있었더라고 한다. 그때 어린 가우스는 즉답하다시피 5천50이란 정답을 냈다. 교사가 놀라「秘訣」을 물으니 1+100=101, 99+2=101, 98+3=101…50+51=101이므로, 1백1×50하여, 5천50이 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훗날 대수학자의 片鱗이 이때 이미 나타난 것이라 하겠으나, 만일 그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 태어 났다고하면 어떨까. 이것은 결코 부질 없는 물음이 아니다.

작년 여름 서울大의 鄭然泰교수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학실력을 다른 나라 학생과 비교조사한 적이 있다. 전국 2천8백40명의 중2생을 대상으로「국제 교육 成就度평가협회」의 표준문제 시험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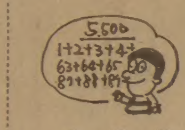
그 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성적은 70점 만점에 평균 29·9점, 선진국을 포함한 12개국 평균 23·9를 훨씬 앞질렀고, 이스라엘(32·3) 일본(31·2)에 이어(30·4) 다음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권의 분포는, 우수학생으로 치는 61점이상이 겨우 0·1%에 그쳐, 일본의 1·3%보다 엄청나게 처진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자질은 좋으나, 뛰어난 數才가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비교조사의 결론은, 우리나라 중학교육의 下向平準化, 추리력보다 암기력 위주의 수학교육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있다. 그 때문에 한국의 가우스는 까딱 數痴로 끝나거나, 고작 大入점수나 올리는데 그칠지도 모른다. 과학 분야에서의 큰 업적은 언제나 다수의 凡人보다 소수의 英才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심각한 일이다.

그제(17일) 서울대학은 제1회 대학생 수학競試대회를 열었다. 數才를 발굴하는 좋은 계제가 될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으로는 너무 늦다. 국민학교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競試대회를 열어 數才를 발굴하고 키워야한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국가대표선수의 強訓이 스포츠에만 있으란 법은 없다. 平準化10년의 병폐를 그냥 둔채, 科學韓國은 밝아오지 않는다. 날을 따라잡는 지금에 시급한 것이 바로 英才교육이다.



金 昌 悅
<編輯委員>

나이로비市廳서도 뜨거운 환영

市長등과 15분간歡談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케냐

市廳건물 매우훌륭

○…케냐방문 이틀째인 18일 상오(현지 시간) 全斗煥대통령은 나이로비市廳을 방문, 카하라시장과 市간부들과 사무총장등 市의회중진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 시청현관에서 예복차림의 카하라시장, 오동고부시장등의 영접을 받고 악수를 나눈뒤 카하라시장의 안내로 나이로비시장을 상징하는 시장봉을 든 향로를 앞세우고 2층 시의회장으로 올라가 시의회 각분과위원장, 시의원등 30여명과 악수로 인사를 교환.

全대통령은 이어 시장실로 자리를 옮겨 카하라시장, 오동고 부시장등 시간부들과 약15분동안 환담을 한뒤 선물을 교환.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시청건물이 오래된것같은데 건립된지 몇년이됐느냐』고 물으면서『시장실이 매우 훌륭하고 전통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카하라시장은『46년전에 지었는데 그후 계속 증축하고있다』고 답변한뒤『나이로비시민의 이름으로 각하의 시청방문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인사.

카하라시장은 또『위대한 지도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그진가와 빛을 발하는데 각하는 한국의 평화와 발전을 이룩했고 모이대통령도 각하와같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면서『이같이 훌륭한 두 대통령이 만난것은 우연이 아니며 양국의 장래를 위해 축복된 일』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과 카하라시장은 환담이 끝난뒤 서로 선물을 교환했는데 全대통령은 카하라시장에게 남산공원의 서울시가지 모습을 담은 대형사진액자와 청자로 된 필통 1점을 선물했고 카하라시장은 지도자를 상징하는 나무지팡이와 구리로만든 코끼리조각등을 全대통령에게 증정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한글로「아름다운 나이로비시를 방문하게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나이로비시와 시민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라고 쓰고 서명한뒤 市간부들과 市의회중진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청을떠났다.

◇全斗煥 대통령이 18일상오 조모·케냐타 전케냐 대통령의 묘소에 헌화하고있다.【나이로비(케냐)한국사진기자단=聯合】

單獨회담 和氣애애

○…全斗煥대통령과 모이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은 金炳薰의전수석비서관만 배석한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1시간30분동안 진행.

이날하오 5시정각(한국시간밤11시) 붉은색 카피트가 깔린 회담장을 나란히 들어선 양국원수는 착석하자마자 영어로인사말을주고받았다.

이자리에서 全대통령은『영빈관정원이 잘꾸며져있고 아름다우며 에어컨이 없는 방인데도 아주 시원하다』고인사. 全대통령은 모이대통령에게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자신의 제12대 대통령취임식때 각료를 경축사절로 보내준데대해 사의를 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케냐에진출한 우리기업체와 사파리·파크호텔, 태권도사범등 우리교민의 활동을 케냐정부가보호해주고 각별히 배려해주고 있는것을 특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

◇全斗煥 대통령이 18일상오 나이로비시청을 방문, 카하라시장(右)으로부터 선물을 받고있다.【나이로비(케냐)한국사진기자단=聯合】

한국은 深夜이지만

○…두나라 원수는 1시간30분동안의 정상회담을 끝낸뒤 나란히 붉은색 카피트가 깔린복도를 지나 별도의 확대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계속.

全대통령은 모이대통령의 인사말에 대한 답사를 통해『지금 한국시간은 자정이 지나 밤12시50분이라 모두가 잠을 자고있고 대학입시생이나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만이 잠념없이 일하는 시간』이라면서『모이대통령과함께 회담장을 떠나지만 남아있는 양국의 대표들이 유익한 대화를 해달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훌륭한 두大統領 만난것 祝福된일

지도자상징「나무지팡이」등 선물로

뜨거운악수 첫인사

○…이번 순방일정중 가장 긴 항로인 7천5백78㎞를 8시간30분동안 비행한끝에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대륙을 밟은 全斗煥대통령은 조모케냐타공항에서 姜錫在駐케냐대사와 아[illegible] 의전장의 기상영접을 받았다.

트랩을 내려온 全대통령은 모이대통령과 뜨거운 악수로 첫인사를 나누고 출영나온 케냐측 인사들을 소개받은뒤 金埈成부총리등 한국측 각료급 공식수행원들을 모이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어 全대통령내외는 나이로비국민학교에 다니는 여학생2명으로부터 환영의 화환을 받고 모이대통령과 함께 환영식장으로 자리를옮겼다.

이날 환영식에서 애국가와 케냐국가가 연주될때 케냐의 관례에의해 예포발사는 없었으며 모이대통령이 지휘봉을 들어 경례를 했고 全대통령은 우리나라 관례에 따라 왼쪽가슴에 손을 대어 경의를 표했다.

또 의장대를 사열할때는 천천히 걸어가는것([illegible])이 이곳의 관례로 되어있으나 케냐측은 의장대장이 全대통령의 보행속도에 발을 맞추는등 국빈대접에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날 공항에는 케냐의 12개부족을 대표하는 2백40여명의 원색옷차림을한 남녀무용수들이 태극기를 들고나와 민요와 민속춤을추며 全대통령내외의 방문을 환영했다.

공항 환영식장에는 50여명의 교민들이『반만년역사속에 아프리카로 뻗는 우리국력』『대통령각하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나와 먼길에서온 국가원수를 따뜻이 맞이했으며 태권도복을입은 케냐여군과 나이로비시민 50여명도나와 환영했다.

특히 한국인 태권도교관은 환영식현장에서 격파시범을 보이기도했다.

全대통령은 양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는 교민들에게『안녕들 하십니까』고 거듭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모터퍼레이드 1㎞

○…공항에서 영빈관까지 8킬로미터에이르는全대통령의 모터퍼레이드 행렬은 1㎞에 달했으며 연도 중간 중간에는 많은 나이로비 시민들이 나와 코리아 코리아하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양국기를 흔들어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빈관에 도착한 全대통령은 현관에 마련된 방명록에『위대한 케냐를 방문하게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대통령 全斗煥 8월17일』이라고 서명한뒤 모이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로가 잠시 환담했다.

케냐정부는 全대통령이 도착한 공항에서 영빈관에 이르는 연도경비에 세심한 배려를했다.

言論들 크게報道

○…全대통령내외의 케냐방문을 맞아 이날밤 케냐國營방송인 VOK는 9시부터 30분간 한국에 관한 특집을 전국에 放映.

VOK는 全대통령이 제5공화국출범후 이룩한 각분야에 걸친 업적을 약8분간 소개했고 이어 22분간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육문화정책등을 담은「내일을위한 교육」이라는 프로를 방영했다.

VOK는 또 정규뉴스시간인 밤9시30분 全대통령내외의 케냐도착과 공항환영행사를 톱뉴스로 약7분간 상세히 보도했다.

한편 나이로비에서 최대부數를 발간하고 있는 日刊英字紙 데일리·네이션과 더·스탠더드, 나이로비·타임즈紙등은 全대통령이 도착한17일자 朝刊에서 각각 전체紙面의 3분의1가량을 할애, 全대통령 케냐 방문과 한국관계특집기사를 大書特筆.

데일리·네이션紙는「全대통령 새시대를 열다」「제3세계와의 협력을 공고히」「한·케냐 교역增大」路」등의 제목으로 전체紙面20페이지중 8페이지를 할애했고 더·스탠더드紙는 24페이지중 6페이지를「1·12」「6·5」제의등 주로 한국정부의평화통일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관계특집기사를 실었다.

이들 신문들은 또 現代·大宇·鮮京등 현지 진출기업의 全대통령 케냐방문을 환영하는 광고도 함께 실었다.

포스터孃 半裸잡지 要請

힝클리病院에서 잡지사에 편지

◇힝클리 짝사랑 포스터孃을 레이건 대통령을저격한 힝클리가 짝사랑하여배우 조디·포스터양이 美하이·소사이어티誌 82년3월號에서 요염한 자태를 과시하고있다.【뉴욕17日AP電送=聯合】

레이건미국대통령 저격범인 존·힝클리는 최근 한 섹스잡지사에 여배우 조디·포스터양의 반나체사진이 담긴 잡지 1권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힝클리는 레이건대통령 저격당시『택시운전사』라는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포스터양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있었는데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포스터양에게 감동을 주기위해서 대통령을 저격했다고진술했었다.

하이·소사이어티잡지사에 의하면 힝클리는 5달러짜리 우편환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발신인주소는 그가 지금 억류돼있는 워싱턴의 성엘리자베드病院이라는것.【뉴욕=聯】

海外토픽

「덴마크」가장좋아
★美大學서 조사 美는41位

정치활동이나 자연재해까지 생활환경요인에 포함시켜 고찰해볼때 세계에서 가장살기좋은나라는 덴마크이고 가장 살기나쁜 나라는 이디오피아이며 미국은 1백7개국가중 41번째 생활하기좋은나라순위에 머문다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사회학부 연구실이 밝혔다.

에스테스박사는 일반적인 국가별 생활환경여건에서 미국이 항상 수위를 유지해온것은 경제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후생과 복지시설, 문명과 교육, 정치적 참여도와 안정, 여성권리신장도, 지리적 요인및 자연환경등을 경제성장과 인플레등의 요인과 종합하여 고찰하면 미국은세계에서 41번째 잘사는 나라로 밀려나게된다고 말하고있다.【필라델피아=AP】

알·카포네寫眞횡재
★50弗에사 4천여弗에競賣

미국의 한수집가는 50달러에 구입했던 시카고의 악명높았던 갱 알·카포네의 자필서명이든 그의사진을 최근 뉴욕의 경매장에서 4천2백50달러(약3백만원)에 팔아 횡재를했다.

12살때부터 유명인사들의 자필과 사진을 수집하기 시작, 이제는 수집업으로 먹고산다는 마크·호프먼씨는 이사진이 그렇게 가치있는것인줄 미처 몰랐다면서 자신은 고작 3백달러정도 받을것으로 예상했었다.

호프먼씨는 이 사진이외에도 링컨대통령의 자필편지를 6천달러(약4백20만원)에, 워싱턴대통령의 편지를 9천달러(약6백30만원)에 각각 팔았다.【샌디(미유타州)=UPI】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공연함

●연 중 무 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밴, 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0,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 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競技場폭력 뿌리뽑는다

사회淨化委「질서확립 종합對策」수립

拘束수사로 엄중處罰

선수·審判 교육강화 是非소지 없애
유리병 제품 搬入·판매등 강력團束
학생 團體응원 校長·校監 책임하에
選手 선발땐 品行·학업성적등 참조

정부는 경기장에서 폭력·난동행위가 다시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경기장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다같이 지켜나가기로했다.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金聖基)는 이를위해 18일 하오2시 내무、문교、문공、체육부와 대검、치안본부、서울시등 8개관련부처、대한체육회、20개 주요경기가맹단체와 2개종합운동장등 관계기관실무자 연석회의를 소집、이같은 대책을 시달하고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경기장질서를 파괴하는 폭력및 난동자는 철저히 가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처벌하고 선수와 심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비의소지를 없앤다는것등이다.

또 경기장의 관람시설과환경을 개선하고 주류·음료수등의 유리병제품을 경기장안에들여오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합동으로단속하며 학생단체응원은 교장 또는 교감을 인솔책임자로하고 응원단수에 맞게 지도교사를 배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질서를 문란케한 학생은 학사징계하며 일단 불상사가 생기면 난동자를 색출、구속수사 하는 한편 인솔자를 징계위에 넘기도록 했다.

한편 경기장은 휴지통을 충분히 설치하고 쓰레기수거전담반을 편성、화장실도 늘리며 재래식은 모두 수세식으로 개선하도록했다.

이밖에 품행이 나쁘거나 학업성적이 좋지않은 학생은 선수로 선발하지못하게하고 경기도중 불상사가 나면 심판단이 경찰지원요청등 조치를취하고 심판자질을 높이기위해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자체교육을 강화、일정교육을 받은 사람만 심판배정을하고 부정행위에 관련된 심판은 엄중처벌토록했다.

축구、야구、농구、럭비、하키、복싱、태권도등 과열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장에는 기동경찰을 중점배치하고 경기장과 관람석을 적절한간격으로 분리하거나 보호망을시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매표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창구를 탄력적으로운영하고 매표원에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했으며 암표단속에 지역책임제를 채택하기로했다.

◇꼴불견"滿點" 어느날의 운동장 폭력현장。웃통을 걷어붙인 관중이 날뛰는 사이 한사람이 흩어져있는 소줏병등을 주워 모으고있다。

해설

경기장은 秩序의식의 표본
올림픽대비 自律정신 시급

한사회의 질서관이나 도덕률을 표본처럼 재볼수있는 곳이 경기장이다。이곳에서 선수와 심판의 매너와 관중의 수준을 가늠할수있는 것이다。그런점에서 볼때 이번 강경조처는 시민들에게는 다소 창피한 일이된다。스스로 해결치못하고 타율에 의해야 한다는것은 성숙한 시민이 돼있지 못한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기도했지만 프로야구탄생과 각종경기의 TV중계확대등으로 국민의 스포츠관심이 점차높아지고있는 추세인만큼 경기장의질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대책가운데 선수와 심판、임원등에대한 분야별교육강화와 선수선발에 학력、품행등을 참작하도록 조치한것은 합리적일듯하다。

이제까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중 상당수가 심판의 애매한 판정、임원의 과격한 행동、선수의판정불복등이 화근이돼왔고 이들의행동이 흥분한 관중에 불을 질러 온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경기장 난동사건은 81년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1건이나 발생했다。

이중 지난12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프로야구도중 일어난 관중들의 난동은 많은 부상자와 기물을 파괴해 구속사태까지 빚었다。

또 지난4일에는 光州운동장에서도 관중들이 프로야구를 보다 판정에 불만을 터뜨려 빈병등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6월17일 서울운동장에서도 청룡기대회 고교야구도중 응원단이 빈병을 던지며 경기장에 난입해 4차례나 시합이 중단되기도했다。

관중의일그러진관전매너와 함께 문제가되는것은 선수나 임원들의 난동이다。지난7월28일 崇文고교에서열린 전국종별하키경기중 선수8명이 판정에 불복、주심을 폭행한 사건까지 있었다。또 지난6월5일에는 大邱럭비구장에서 고교선수와임원이 주심을 폭행했고 지난해 10월11일 전국체전때는 럭비일반부경기중 임원2명이 경기가 끝난뒤 여관에 투숙중인 주심에게 폭행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적도 있었다。

한편 난동때 흔히 「무기」로쓰이는 유리병용없애는 대신 외국처럼 종이컵이나 비닐제품의 개발도 시급한점이다。

그러나 단속이 만능은아니다。관중은 물론 선수、임원、심판등 모든관계자의 질서의식이 한층 필요한때다。【裵琪哲기자】

아파트 전문털이 20代 2명을 拘束

【馬山】경남 馬山경찰서는 18일 김덕필(28·주거부정·전과10범) 박세호(28·주거부정·전과7범) 등 2명을 특수절도및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 5월25일 새벽3시30분께 경북慶州市城乾洞 보우아파트 110호에 베란다를통해 침입、잠자던 주인 이춘일씨(40)부부를 흉기로위협、금비녀등1백30만원어치를강탈하는등 지난5월부터 지금까지 부산 大邱 慶州 馬山 蔚山 晉州등지에서 1백여회에 걸쳐 6천만원어치의 금품을털어왔다는것.【聯合】

마늘도둑 盛行
尙州 값오르자 곳곳서 被害

【尙州】경북 尙州 지방에는 요즘 마늘값이 크게 오르자 마늘도둑이 성행하고 있다.

16일 새벽1시께 경북尙州郡尙州邑洛陽洞312 이광호씨(28)집에 도둑이 들어 이씨집 처마에 달아놓은 마늘60접(싯가60만원)을 훔쳐 달아난것을 비롯 같은날 이마을 고학선씨(47)집에도 도둑이 들어 마늘 14접을 훔쳐 달아났다.

이밖에도 지난17일 새벽3시30분께 尙州郡尙州邑佳庄里249 김천수씨(32)집에도 도둑이 침입、마늘21접을 훔쳐갔으며 같은마을 김경자씨(50)집에서도 마늘8접을 도난당했다.

마늘도둑이 이같이 부쩍늘어나고 있는것은 尙州지방의 마늘값이 지난달말에는 접당 상품8천원하던 것이 지난10일부터 1만여원으로오른데다 보관이 허술하기 때문인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聯合】

한국일보 533·2361

美 알래스카灣어장 水振院서 實態조사

【釜山】국립수산진흥원의 시험조사선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조업능률을 높이고 적정한 어획쿼터량을 배정받기위해 미국의 알래스카만 중동부해역을 대상으로 70일간의 시험조사에 나선다.

18일 국립수산진흥원에 의하면 오는24일부터 11월1일까지 시험조사선 오대산호(1천1백27톤)를 미알래스카만 중동부해역에 보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조업중인 95개해역에서 참치어장 형성실태를 조사하고 어획할당량을 책정、관리하고있는 미국측에 이조사자료를 제공、어획쿼터량을 높이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편다는것.

오대산호에는 국립 수산진흥원 김봉안연구관을 비롯、수산연구관、보도진등 모두38명이 동승、어류분포상황과 해양환경및 생물학적 조사、처리가공、시험장등 광범위한조사를 하게된다.【聯合】

왜곡是正 촉구 한국婦人會 示威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在日한국부인회는 8일 상오 東京시바(芝)공원에서 1천5백명이 모여 왜곡교과서의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부성과외무성까지 시위했다.

이 결의문에서 『정확한 역사를 일본청소년에게 가르치는것이 진정한 한일친선의지름길이며 일본교과서의 왜곡사실이 시정될때까지 계속투쟁하겠다』는 뜻을 외무성과 문부성에 전달했다.

한편 朴永昌목사(로스앤젤레스 南가주교회)는 이날하오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인 朴寬俊장로와 함께 1939년3월24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명서를 일본중의원에서 낭독、투옥됐다』고 폭로하고 『신사참배가 강제로 행해졌다는것을 입증키 위해 미국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말했다.

炭더미에 깔려 鑛夫 3명숨져

【太白】18일 상오4시께 강원太白市禾田洞 덕천탄광의 대원갱에서 채탄 작업중이던 광부 이정술씨(39·太白市禾田1洞 선산부)와 박현철씨(26·太白市禾田2洞후산부)가 탄더미에 깔려 숨진채로 발견됐다.

【寧越】18일 새벽5시께 강원旌善郡舍北邑古汗里 三陟탄좌 정암광업소 북부갱에서 채탄작업을 하던 선산부 황영복씨(45)가 천장에서 무너져내린 3톤가량의 붕탄에 깔려 그자리에서 숨졌다.【聯合】

오토바이 타고가다 트럭받혀 2명死亡

【淸州】17일밤11시께 충북淸州市社稷洞235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연귀봉씨(23·淸州市牛岩洞120의21)와 뒷자리에탔던 홍미선양(24·경기龍仁郡龍仁邑三街里194)이 뒤에서 달려오던 동원기업소속 충북7가7440호 8톤 덤프트럭(운전사 박병용·26)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聯合】

LPG충전소 許可기준강화
주민同意書 첨부토록
京畿道

【水原】경기도는 주택가에 LPG충전소가 들어설때마다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자 지난13일 관계규정을 개정、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3월 LPG충전소 설치허가권이 시·도에 위임되자 경기도는 법정보안거리의1·5배거리까지의 땅을 소유한경우는 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이라도 인근주민의 동의없이 허가할수 있도록 정했었다。

이에따라 10t짜리 지하탱크를 매설할 경우 법정보안거리인 탱크로부터 사방12m보다 6m 더많은 사방18m이내의 땅만 확보하면 허가를 취득할수 있어 18일 현재 경기도가 허가한 34개소중 19개소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허가됐다。

이에따라 지역주민들은 LPG충전소가 들어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공사를 시작하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도청에 몰려와 항의하는가 하면 공사를 못하게 부녀자들이 실력행사를 벌이기까지 했다。【聯合】

"주거환경침해"訴訟
大邱市상대 LPG충전소 許可취소요구

【大邱】大邱市가 주택밀집지역에 LPG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주거환경권의 침해라고 주장、법원에 설치허가취소청구소송을 냈다。

大邱市南區鳳德洞984 全相浩씨등 주민 30명은 18일 大邱市를 상대로 LPG충전소설치허가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大邱고법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大邱市는 지난 3월30일 大邱市南區鳳德洞984의2에 LPG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줘 현재 공사중인데 영업을 할경우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로 공해를 입게되는데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설치를 허가한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LPG충전소 허가규정에는 상업지역의 경우 설치장소에서 12m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聯合】

列車치여 男兒숨져

【大邱】17일하오 6시10분께 경북龜尾市松亭洞 경부선 상행선(서울기점279·59km)에서 부산기관차 소속 제38특급열차(기관사 배봉준·38)에 이창범씨(29·龜尾市元南洞元南 연립주택83의4)의2남 주일군(3)이 치여숨졌다。이날 주일군은 동네어린이들을 따라나와 철로위에서놀다가 열차를 미처피하지못해 변을당했다。【聯合】

"罷免처분은 不當"
河형사事件관련 징계 尹章鎬씨
서울高法 취소判決

서울고법특별1부(재판장 金容俊부장판사)는18일전서울龍山경찰서 河英雄형사의 尹노파 예금증서절취사건과 관련、파면됐던 전龍山署형사2반장 尹章鎬씨(당시경위)에대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尹씨를파면한 서울시장의 조치는 재량권 일탈내지남용이다』고 판시、尹씨에대한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증서관리를 부하에게 맡긴 잘못은 있으나 목록이 사후에나마 재작성돼 유족들에게 넘겨졌고 다른 수사업무에몰두해 있었으며 61년 임관이후 한번도 징계를 받은바없이 많은 강력사건을 해결한 점으로보아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大學街 징계회오리
成績불량학생 무더기 除籍·경고
거의1·2학년…西江大 제적37·弘益大 15명

2학기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1학기성적불량학생에대한 학사징계를 시작했다。

18일 西江大가 37명을제적하고 4백20명을 경고처분한데 이어 東國大、弘益大、淑明女大등이 1학기 성적을토대로 학사징계조치를 했고 서울大、高麗大、延世大、梨花女大등 나머지 대학들도이달중으로 학사징계를 끝낼예정이다。

西江大는 1학년학생 가운데 2회의 경고를받은 16명이 제적된 것을 비롯 2학년이 9명、3학년8명、4학년 4명등 모두 37명이 제적됐고 1학년생 가운데 15%인 2백40명이 무더기 경고를받았다。

東國大도 1학년생의 9%인 2백45명、2년생 2백26명、3년생89명、4년생 34명등 모두 5백94명이 경고를 받았다。

弘益大는 15명이 제적된것을 비롯 모두 4백45명이 경고를 받았고 建國大도 지난해 1백38명보다 2·5배나 늘어난 3백67명이 무더기 학사징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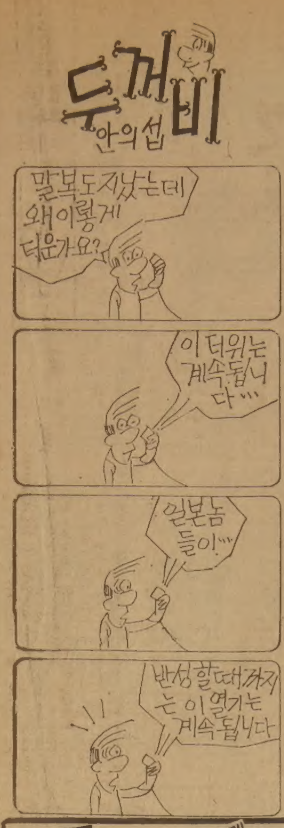
한편 淑明女大도 3회이상의 경고를 받은 3명이 제적됐으며 69명이 경고를 받았고 德成女大는 2명이 제적되고 79명이 학사경고를 받았다。

中國집에 放火
滯賃 안준다고 주방장이

17일밤10시50분께 서울城東區中谷2洞125의12 중국음식점 신천장(주인 權俊姬·30·여)에서 전주방장 李中善씨(24·주거부정)가 안방에 석유를뿌려 불을지르고 달아났다。

불은 權씨와 종업원들이 곧 발견、3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10분만에 진화됐다。

달아난 李씨는 지난5월부터 주방장으로 일해오다 지난16일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며 나간뒤 이날하오찾아와 밀린봉급 10만원을 내놓으라며 요구하다 權씨가 거절하자 주방뒤에 있던 석유를 꺼내 뿌리고 불을 지른뒤 달아났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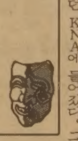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最古參

CPA航空 스튜어디스 李立粉씨
22년經歷…"어떻든 손님은 王이죠"

스튜어디스하면 흔히 늘씬한20대 미인을 생각한다。그러나 CPA항공사(國泰航空)의 스튜어디스 李立粉씨(사진)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늘씬하고 미인인점은 틀림없으나 결코 「20代」는 아닌것이다。『진짜 스튜어디스일까』할정도로 어딘지 나이가 들어보인다。

李씨의 나이는 「자그마치」42세。하나 22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참 스튜어디스로서의 관록이 대단하다。李씨가 비행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0년。다른동료 7명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민항이었던 KNA에 들어갔다。그때만 해도 스튜어디스는 꿈의 직업이어서 지망생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다。이들을 물리치고 선발됐을때의 기쁨은 지금도 아련한 추억중의 추억이다。



그러나 비행기를 막상타보니 화려한 겉모습뒤엔 많은 고달픔이 도사리고있었다。당시는 비행기가 작아 몹시 흔들렸고 장비가 미흡해음식도 한가지씩 날라야했다。그러나 60년가을 전세기를 타고 미국에 다녀와 동네어른들에게 밤새껏 미국이야기를 들려주던 때는 항공인이 된 보람을 실감했다。

62년 JAL에 특채돼 동남아노선을 날다 대한항공을 거쳐 66년 현재의 CPA로 자리를 옮겼다。CPA로 옮길때는 홍콩에 머물러야한다는 이유때문에 애인이 『헤어지자』며 막무가내였으나 스튜어디스의 길을 택했다。

현재 李씨는 CPA에 근무하는 한국여성 95명의 정신적 지주다。원래 CPA의 여성정년은 40세지만 李씨의 빼어난 서비스솜씨와 단아한 용모때문에 社規를 무시하고 계속근무시키고 있다。월수는 1백50만원。체공시간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1만시간이 훨씬 넘는다。

『60년대 초까지만해도 고급공무원등 해외에 나들이하는 사람이 제한돼있어 승객들의 수준이 아주 높았읍니다。그러나 이젠 해외여행이 보편화된탓인지 옛날만 못해요』

「옛날만 못하다」는 표현에 액선트가 강하게 놓여지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인 승객들의 추태를 손꼽으려하기를 꺼린다。몸에밴 서비스정신때문일까。

『승객수준의 보편화와 함께 스튜어디스도 보편화된게 아닌가』고 묻자 그녀는 재빨리 『어떻든 손님은 왕이 아니겠어요』라고 재치있게 말꼬리를 피해갔다。【李鏞기자】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
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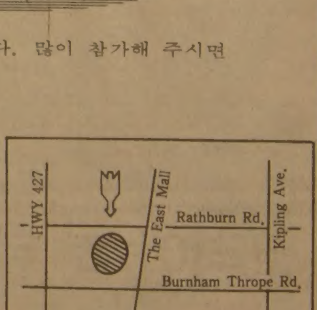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 창립10주년기념

시내교회 초청 배구대회

아래와 같이 시내 교회 초청 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 1982년 9 월25일(토) 오전 9 시
대회장소 : BURNHAMTHROPE COLLEGIATE
(76 KEANE AVE.)
참가비및 신청 : 참가비(팀당 $50)와 신청서를
9 월 4 일까지 본교회로 우송함.
대회방법 : 6 인조(남자선수 4 명 여자 2 명으로 구성)
구체적인 내용은 주장회의때 결정함.
시　　상 : 1, 2, 3등 트로피및 전참가자에 참가상 수여.
기　　타 : ① 9 월11일(토) 오후 7 시30분에 본대회 진행을 위한 주장회의가 본교회당에서 있겠음.
②대회심판은 한인배구협회에서 봉사합니다.
③자세한 문의는 공병화 집사 ☎ 626－5382로 연락바랍니다.
＊주　　소 : 68 Collinson Blvd., Downsview Ont. M3H 3C3



※Burnham Thrope Rd & The East Mall 만나는 곳에서 The East Mall 북쪽으로 100m가량 올라가시면 왼쪽편에 학교건물, 곧 대회장소가 있읍니다.

당회장 김 용 출 목사

歷史교과서 歪曲한 日本

한국그림 國籍도 날조

日人학예부장도 솔직히 잘못是認

엄청난 우리文化財 돌려주지않아

「奈良 한국미술전」을 보고

孫一根

화적(畵籍)도 왜곡(歪曲)되고 있다。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그림은 그「국적」을「왜곡」당한채 엉뚱한 나라의 그림으로 알려지고있는 수가 많다。나관(落款)이 없는 경우 일본 또는 중국것으로 제멋대로 왜곡해 부르기 일쑤며 영성하고 조잡한 그림만을 한국것으로 돌린는일이 예사인것이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이번에 大和文華館의 호의적인 주선으로 지난8일까지 일본나라(奈良)에서열렸던 「한국미술전」을 관람하는 기회를 가졌다。여기에는 많은 명품(名品)이 전시되었다。다만 ①산수도(山水圖=傳 周文) 2폭과 ②주무숙애련도(周茂叔愛蓮圖=傳 趙雍) 그리고 쌍학도(雙鶴圖=傳 呂紀)등 4점의 작품을 보고는 놀라지않을수없었다。이들 4점은 그화풍이나 화구나 무얼로보나 훌륭한 한화임에 틀림없는데도 중국화가이름을 붙여놓은때문이다。

그러나 이문화관의 요시다(吉田宏志) 학예부차장도이것이 잘못된것임을 전적으로 동감했다。

그러기때문에 일부러 이미술전에 이작품을전시했고、또 그해설을통해서도 열을 올려 극구예찬(極口禮讚)하고있었다。후시 「루린」가 한국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 얼굴을 다시 한번 처다 볼정도로 이른바 소만지풍(疏慢之風)이 오히려 담박하고 문기(文氣)가 있어 일본사람에게친밀감을 준다는등 편자랑스럽게 한화를 설명하고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양식있는일본 미술학자가운데는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한화가 일본수묵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말하는데 인색하지않으며 일부 한화의 국적이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었다는것을 솔직이 시인한다。

그러나 아직도 작자 난에 버젓이 남의나라 작가이름을 적어놓은것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주문(周文)은 명(明)나라에서 건너온 소가(曽我)라는 귀화 일본화가 일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나중에 이수문(李秀文)과의 혼동에서 온것같으며 또 그가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조옹(趙雍)은 송나라(宋의湖州)의 조자앙(趙子昂) 아들로서 산수와 화조에 능한 중국작가이고 여기(呂紀) 또한 명나라(明의 寧波) 사람으로 화조에 뛰어난 15세기 중국작가다。

별뜻없이 전례에 따라、편의상、그와같은 작가명을 표시했는지 모르나、그것이 한화로 판명된 이상 그와같은 표기방법은 당장 시정해야마땅하다。

현재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국그림이있다。두나라의 여러문헌을 뒤적이면 일본의 승려가 불경、불상을 얻어가기 위해 한국을 왕래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불화가 묻어 들어갔으리라는 것은 짐작할만하다。

그가운데 하나만 예를 든다면、일본 히로시마(廣島)의 大願寺소장으로 돼있는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만해도 바로 이경우의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불조(佛助)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던 잉깡(印漢僧)을 따라 나섰던 손까이(尊海僧)가 1539년 한국에서 가져간 작품이다。

그밖에 또 우리나라의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간 화원(畵員)들이 제법 많은 그림을 현지에 남겼다。게이다이(東京藝大) 소장인 연담(蓮潭)의 달마매죽도(達磨·梅·竹圖)가 인조14년(서기1636년)에 통신사를 따라간 金明國화원의작품이란것은 말할것도 없다。

화원이 통신사를 수행한것은 전후 12회에 이르며、갈때마다 일본의 현관(顯官)묵객(墨客)들이 시서화(詩書畵)를 그려달라고 아우성이였다니、이들이 남긴 서화가 적지않으리라는 것은 알만하다。

앞의 두가지 경로보다도 임진왜란때 엄청나게많은 불화가 일본에 약탈돼갔다。

이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려의 탱화(幀畵) 다운 작품이 거의없는데비해 일본에는 여태까지 나타난것만해도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그림들이 일본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있다。한일회담타결시에도 우리는 빼앗긴 문화재를 돌려주도록 요청했으나 제대로 반환받지 못했다。이것을 여기에서 재론하자는 뜻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무엇 때문에 또 아픈 상처를 후비는지 모르겠다。일본에 있는 우리 한화의 화적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왜곡된 화적이 하루 빨리 시정되기를 바란다。【本社百想기념관관장겸 논설위원】

山水圖2폭등 落款없는4점 中國것으로

◇朝鮮朝초기 山水畵가 틀림없는 名品。그러나 일본에서는 傳周文作이라고 畵籍을 왜곡시켜놓고 있다。

◇雙鶴圖。소나무의 정통적인 配列솜씨라든가 좀 疏慢한듯한 地面處理등이 분명히 조선조畵員에 의한 作品으로 보인다。그러나 역시 中國 明代의 畵家인 呂紀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舊石器문화의 세계적 史料

美 클라크博士가 말하는 全谷里유물

날카로운 주먹도끼 舊石器초기것

점토층·현무암 分析해야 年代확정

지금으로부터 4년전 경기도 漣川郡全谷面全谷里 한탄강가에서 한 미군장교에 의해 前期 舊石器의 특색을 지니고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을때 학계는 깜짝 놀랐다。前期 舊石器期는 10만년전(下限)에서 2백70만년전(上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까마득한 선사시대이기 때문。이 때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물론이요、동북아시아에서 아슐리안문화로 일컬어지는 前期 舊石器문화가 없었다는게 세계학계의 통설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고고인류학자이며 英學術院 회원으로 크게 활약하고있는 클라크박사가 全谷里 유적지발굴현장을 답사한것은 큰 의미를 던져주고있다。

그는 석기의 날을 날카롭게 세운 주먹도끼를 자세히 살펴본뒤 석기의 형태로 미루어 아슐리안·생고안 문화와같은 발전단계의 유적지라고 진단했다。

아프리카 중동부의 인도양에 면한 생고안지방은 전기 구석기시대의 초기단계에 아슐리안 문화를 꽃피웠다。이 아슐리안·생고안문화는 下限 10만년전에서 上限 2백70만년전의 문화라는게 세계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아프리카 외에도 유럽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석기들이 출토되어 아슐리안 문화는 유럽에서도 있었던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부아시아에서만 이문화권이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한국·중국·일본등 동아시아에서는 이같은 문화권이 없는줄로 알고있었다。이번 클라크박사가 全谷里문화를 직접 확인하고 찬탄을 금치못하면서 돌도끼(핸드 액스) 가로날도끼(클리버) 긁개(스크레이퍼) 石核(플레이크)등의 중량이 무거운것이 특색이라고 밝혀 전기 구석기 중에서도 上限이 2백70만년전으로 올라가는 초기일 가능성을 비친점이 크게 주목된다。

클라크박사는 정확한 연대를 확정짓기위해서는 全谷里의 점토층과 현무암(용암)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뒤라야 알수있다고 밝혔다。용암이 형성된 연대를 통상 20~30만년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한탄강변에 구석기인들이 터전을닦은것은 30만년이후부터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클라크박사는 全谷里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뒤 「석기의 날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분류하는게 좋다」고 조언하면서 앞으로 전곡리구석기유적지를 외국학자들과 공동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장金元龍박사(서울大박물관장)는 생고안문화와같은 문화발전단계이지만 그 문화와 직결된 것은 아니므로 전기구석기의 말기로 볼수밖에없으며 2백70만년전의 上限연대까지 올려보기는 어려울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李忠雨기자】

◇세계적인 고고인류학자 클라크박사가 한탄강변 언덕위에 자리잡은 구석기시대의 全谷유적지를 둘러보고 이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를 외국학자들과 공동연구할것을 제의했다。

어린이 37명救出 직접돌봐

테레사修女 레바논서 활약

로마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자선사절로 레바논에파견된 테레사수녀(71)는16일 전날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西베이루트의 한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구출해낸 37명의 부상아동을 직접 돌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겼다。

테레사 수녀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군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뚫고 이들 팔레스타인 부상아동들을 구출、자신이 2년전 세운 동베이루트의 알라비 학교에 수용했다。【베이루트=AP】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특사자격으로 레바논을 방문중인 테레사 수녀가 14일 西베이루트에서 37명의 불구어린이들을 구출 東베이루트의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후 아이들을 보살피고있다。【베이루트14日AP聯合】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제16일 준준결승

부산고	0	1	0	0	1	1	0	4	0	7
장충고	0	0	0	0	3	2	0	0	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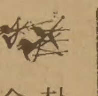
▲부산투수=金宗爽 포수=田龍雨
▲장충투수=李善泰 포수=林太煥
▲안타=부산 8—8 장충

◇제15일 준준결승

군산상고	1	0	0	0	2	0	0	0	1	4
대구고	0	1	0	0	0	0	0	0	0	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양달 ㉘

『그럼요 아래 지하다방으로 잠깐 내려갈까요?』

인재가 경계하는듯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앞장섰다。

인재는 은밀한 자리를 찾지않고 여럿이 합석할수있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담배 먼저 피어물었다。

수지는 단정하게 약간 모로 앉았다。

수지는 프로필이 아름답거던。

담배 연기를 통해 그녀의 옆얼굴을 그윽히 바라보며 인재는 얼마나 자주 그런 말을 했던가。

그녀는 아직도 빠뜨린 제물건 찾듯이 확신을 가지고 그의 눈빛에서 그리움이 되살아나길 기다렸다。

『아까는 참 이상했어요』

인재가 혼자말처럼 말했다。

『아까라뇨?』

『수지씨를 처음 봤을 때 꿈인가 했어요。미스 최줄 알았거든요』

인재의 눈빛이 엉뚱한 대목에서 따뜻하고 그윽해졌다。

『미스 최라뇨?』

수지는 자신의프로필이 그의 관심을 끌지못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정면으로 돌아앉으면서 물었다。

『오목이라는 아가씨 말예요?』

오목이의 이름을 인재의입을 통해서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비로소 인재를찾아온 용건을 생각해 낼수가 있었다。

『실은 저도 그애 일때문에 왔어요』

겨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인재가 결코 자기가 반가와서 그렇게 얼굴을 빛냈던게 아니었단는 걸 알아차리자 속에서 알맹이가 몽땅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했다。

『왜 또 무슨 음해를 붙이려고?』

그가 네 속 내가 다 안다는듯이 악랄하게 웃었다。

『인재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왜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기에?난 또 미스최가고아출신이라고 고해 바친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화냥질이라도 했다는 새 사실을 알아내온줄 알었다니까요』

악랄한 웃음이 만면에 번져 야비한 얼굴이 됐다。

『인재씨、제발 그런 식으로 절 오해하지 말아요。그때 일은 제 잘못이었다고 뉘우치고있어요。그래서 말인데…』

그러나 인재는 수지의 다음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다시 자기나름의 어떤 의혹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웃음을 거두고 마냥 심각한 얼굴이 됐다。

『암만해도 이상하단 말야…』

『뭐가 자꾸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지는 신경질적으로 악을 썼다。인재는 그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맞추기에 급급하지않을뿐더러 그녀의 말을 거의 귀담아듣은것같지도 않았다。대답없이 수지의 얼굴만 쳐다봤다。

뜯어본다는 표현이 딱들어맞게 정감없이 다만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수지는 가슴에 핀이 꽂혀 표본이된것처럼 파르르 굴욕감에 떨었다。

『수지씨가 미스최로 보인게 이상하잖아요?순간적이었지만 영락없이 미스최였어요』

인재의 시선에 몰리면서 수지는 문득 자기속에 오목이를 가두어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착각에 사로잡혔다。오목이를 놓쳐버린 날부터 실은 놓쳐버린게 아니라 꼭꼭 숨겨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엉뚱했지만 떨쳐지지도 않았다。

그녀도 다 식은 찻잔을부둥켜안으며말했다。목소리가 사뭇 떨렸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주간女性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아직도 아침일찍 고생하십니까?

◈아직도 아침일찍 Food Terminal 에 가셔서 고생이십니까?제 도매 가격을 보면 누구나 놀라십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에 더욱 자 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사오니 직접 내방 Pick-up하시거나, 또는 주문해 주시면($150이상) 감사하겠읍니다.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DANFORTH
RIVERDALE PLAZA
CARLAW
PAPE AVE
GERRARD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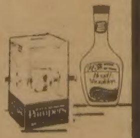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Temperance St.
Ⓟ
Yonge
King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룰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무·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도너스숍에서 풀타임 일하실 여자분구함
시간 오전7시-오후3시(월-금)
Victoria Park & Steel (B)499-4459 (R)299-1431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Mr. 모리

가정 재봉사 구함.
영어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633-2748 Mrs. Gold (토요일에는 전화사절)

도미니언 도나스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구함
(칼레지×영 써브웨이스테이션 건물안)
직접 내방바람.

풀타임 경험있고 영어할 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937 Bay St. 이나, 462 Kingston Rd.로 직접내방바람.

일본식당 남자 키친헬퍼 구함.
전화 : 960-9035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p.m~8 a.m.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222-387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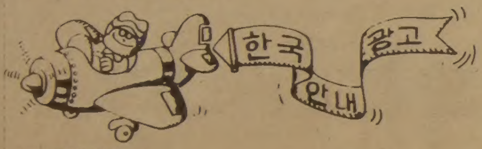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파트타임 캐셔와 헬퍼구함.
15 Queen St. E. 전화: 364-4054
직접 내방바람.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3871 Lawrence Ave. E.
전화 : 431-7168, 439-6428

한국안내광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까요?
보다 높은 광고효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십시요.

●▲구인 ▲구직 ▲재봉사 ▲찾는사람 ▲구혼 ▲여권분실

●▲매매 및 양도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자동차 매매 ▲하우스 렌트 ▲사무실·점포렌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날로발전하는 한국인 커뮤니티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수 있는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읍니다.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프로페셔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인지도를 받으실분 연락주십시요. (all level)
Call Mr. Wong 233-420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집렌트

방세놓습니다. 565 Pape Ave.
2층 전체 월 : $350
전화 : 591-6863, 438-4519

매매

여자용 여름용 한복 급매
한벌에 125불
전화 : 769-4366, 김 (오후6시이후)

상점 급매 (양도)
비지네스 전부재고품(꽃, 채소, 과일, 잡화류)및 시설일체, 자동차 양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나, 유경험자로도 책임지고 트레이닝 해드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
아스킹 : $10,000
전 화 : 769-5584 (서선생)

여자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스킹 $15,000+스탁 2층에 2베드룸 있음.
전화 : 536-6250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개인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전화 : 656-7753 Mr. 최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7,000.
리스 :6년. 렌트 :$1,260. 1,600 sq.Fit
계속 번창하는 지역임. 전화 : 686-0155

4 Door. Walk-in-Cooler and Water Cooling System Air Conditioner팝니다.
전화 : 233-2195(B), 233-0732(R)

개인 레스토랑 매매.(레스토랑 + Tavern)
좋은 위치, 좋은 비지네스. CN타워 근처.
300,000 Turn Over a Year. 주5일 오픈.
아스킹 : 179,000. 다운 : 75,000. 12년 리스.
더원하시면 가능함. 아주 흥미있으신 분만 연락바람.
전화 : 596-6706 (Jimmy)

버라이어티 가게매매.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렌트600불. 전화 : 266-7833 (Mr. 김)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가게 12만달러 15%모기지. 교통이 바쁜 지역에 2 베드룸 아파트. 최고조건, 주차장이 있고, 빈가게를 인수됨.
⊙아파트 빌딩 : 7동. 2층벽돌집에 주차장과 3개의 벽난로 있음. 연수입 : $25,452. 아스킹 : 200,000.
Call Doris Burda 763-5555
Cholken Real Estate.

Store Equipment for Sale
Dairy Box 1. 후리저(컴프레샤 포함)
전화 : 844-571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년리스 + 5년옵숀 주매상: $3,500 아스킹: 2만5천불 (이층 살림집 있음) 전화 : 463-8674

새로운
집을 장만하실
생각이십니까?

광고문의
☎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순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우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환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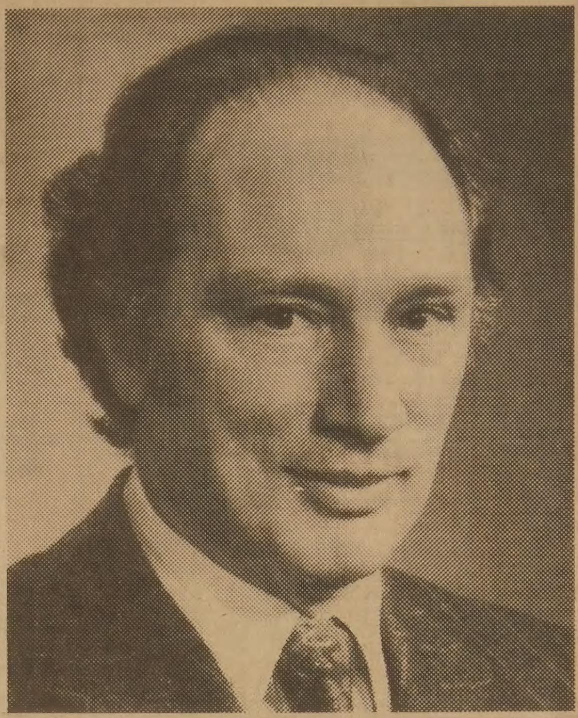
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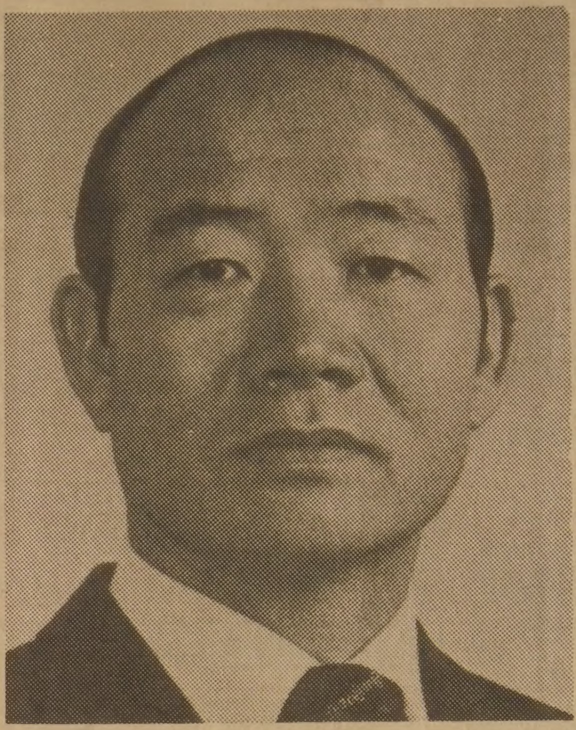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경축





전두환대통령각하내외분의 캐나다 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전대통령 각하의 캐나다 방문으로 양국간의 정치·경제·사회 및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유대및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1982년 8월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본 점
☎ : 364-2890

지 점
☎ : 533-8593

캐나다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친절히 처리해 드립니다.